

시사·토론

대중매체 양성평등 내용분석 보고서



07

들어가며

08

양적분석

13

질적분석

18

나가며

20

모니터링
내용

2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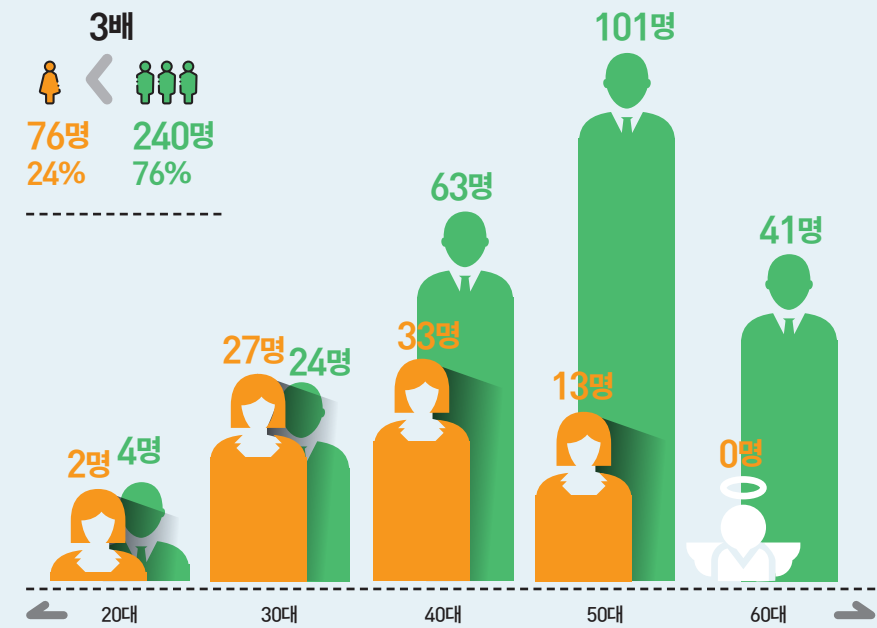
모니터링
체크리스트

시사·토론 프로그램 내용분석 보고서

모니터 장르 | 시사·토론프로그램
모니터링 기간 | 2019년 7월 8일~7월 28일까지 방영분 중 3회분¹
모니터링 매체 | TV(지상파, 종합편성채널, 케이블)
대상 방송사 | KBS1, KBS2, MBC, SBS, JTBC, TV조선, 채널A, MBN, tvN,
프로그램 수 | 25개 프로그램(표1 참조)
모니터 인원 | 18명

등장인물 성별

여성과 남성은 30대까지는 비슷한 수로 등장했지만 40대가 넘어가면서 급격한 차이를 보이기 시작한다. 40대에는 남성이 2배 더 등장했지만 50대에서 들어서면 여성은 13명, 남성 101명으로 무려 7배 이상 차이가 났다. 이러한 격차는 점점 더 심해져 60대 이상의 남성이 42명 등장할 때(전체 중 13.3%) 60대 이상 여성은 단 한명도 등장하지 못했다.



직업군별 성비

직업군별 성비가 가장 두드러진 직업군은 비평가/평론가와 공무원이었다. 남성은 각각 9명이 등장했지만 여성은 단 한명도 등장하지 못했다. 국회의원의 경우 약 7배, 교수는 3배, 법조인은 6배 남성이 더 많이 등장했다.



¹ 주 1회 방송하는 프로그램의 경우 3주치 프로그램에 대한 모니터링이 진행되었지만, 월~금까지 주 5일 방송하는 프로그램의 경우 모니터링원이 임의로 모니터링 기간 내 3회분을 선정했다.

01
들어가며

유네스코는 세상에 대한 상을 구성하는 미디어의 역할을 고려할 때, 픽션보다 보도 프로그램처럼 사실을 기반에 두고 있는 프로그램에서의 젠더 묘사의 중요성을 강조했다.² 캐나다 방송 심의 규정집에 따르면 뉴스 및 시사 프로그램에서 남성과 여성은 광범위한 직업 및 의사정책 결정 역할에서 동등하게 출현해야 한다.³ 그렇다면 한국 시사·토론프로그램에서의 젠더 묘사는 어떠할까? 시사 프로그램에서 여성과 남성은 동등한 비율로 출연하고 있는가? 질문들에 대한 답을 찾기 위해 서울YWCA 대중매체 양성평등 모니터단은 2019년 7월 8일부터 28일까지 지상파, 종합평성채널, 케이블의 25개 시사·토론프로그램을 대상으로 모니터링을 실시하였다.

[표1] 모니터링 프로그램 현황

	매체	방송사	프로그램명	요일/시간
1	지상파	KBS1	추적 60분	금/22:50
			저널리즘 토크쇼J	일/22:30
			특파원 보고 세계는 지금	토/21:40
			생방송 심야토론	토/21:40
			오늘밤 김제동	월~목/23:00
			시사기획 창	화/22:00
7		KBS2	제보자들	목/20:55
8			탐사기획 스트레이트	월/22:05
9		MBC	PD 수첩	화/23:05
10			당신이 믿었던 페이크 시즌 2	월/23:05
11			MBC 100분 토론	화/24:00
12			궁금한 이야기 Y	금/20:55
13		SBS	그것이 알고 싶다	토/23:10
14			이규연의 스포트라이트	목/21:30
15	종합편성 채널	JTBC	밤샘토론	매월 둘째, 마지막주 금/ 24:20
16			사건반장	월~금/15:50
17		TV조선	시사쇼 이것이 정치다	월~금/17:30
18			신통방통	월~금/9:00
19			보도본부 핫라인	월~금/13:00
20		채널A	김진의 돌직구쇼	월~금/9:20
21			선데이 뉴스쇼	일/12:10
22			토요 랭킹쇼	토/12:10
23		MBN	판도라	월/21:30
24			MBN 토요포커스	토/5:40
25	케이블	tvN	커버스토리	목/20:50

2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방송프로그램의 양성평등 실태조사,한국여성커뮤니케이션학회, p48
3 심미선 외, 미디어에 의한 성차별 모니터링, 국가인권위원회, p33

(1) 출연자 성비

출연자는 진행자(나레이션 포함), 패널, 리포터/기자, 전문가 인터뷰이를 포함시켰다. 시사·토론프로그램은 추적보도 또는 토론의 형식인데 이때 추적보도에 등장하는 사건의 피해자, 가해자, 시민 인터뷰어 등은 출연진에서 제외하였다. 시사·토론프로그램의 목적이 사회적 현상 분석, 정보 전달, 사회 이슈에 대한 해법 모색 등임을 고려할 때, 추적보도 프로그램에서 현상을 분석하고 해법을 모색하는 주체는 진행자, 추적보도를 이끄는 리포터 그리고 전문성을 더해주는 역할의 전문가 인터뷰이라고 보았기 때문이다.

2019년 7월, 25개의 시사·토론프로그램 속 출연자 성비는 여성 24%(76명), 남성 76%(240명)으로 시사·토론프로그램 속 남성은 여성에 비해 약 3배 많다. 지난 3월 모니터링한 예능 프로그램의 성비가 여성 42.1%, 남성 57.9%⁴, 4월 광고 모니터링 속 성비가 여성 44%, 남성 56%⁵을 고려해보면, 심각성이 더 잘 드러난다. 이전 3-4월 모니터링에서도 남성에 비해 여성 출연진이 적은 지점이 문제였지만 시사·토론프로그램 속 불균형은 예능과 광고 보다 훨씬 심각했다. 시사·토론프로그램을 남성이 이끈다는 것은 공적/정치적인 영역은 남성의 몫이며 사적/비정치적인 영역은 여성의 몫이라는 고정관념을 공고히 한다. 이는 단순히 현실 성비의 문제를 넘어 성차별적인 고정관념을 개선하는 데에 적극적인 개입이 필요함을 뜻한다. 특히 텔레비전 내 남녀 성역할이 사회 구성원들의 성별 고정관념 형성에 중요한 영향을 끼침을 고려할 때, 시사·토론 프로그램 속 성비 불균형의 개선은 성평등 사회로 나아가는 데 필수적이다.

<생방송 심야토론>의 경우 총 11명의 출연진 중 오직 1명만이 여성이었고, <그것이 알고 싶다> 또한 16명 중 단 1명만이 여성이었다. 심지어 <판도라>의 경우 7명 중 여성 출연자가 단 한명도 나오지 않았다. 남성에 비해 여성이 더 많았던 프로그램은 <시사기획 창>뿐이었고, <시사기획 창>, <오늘밤 김제동>, <커버스토리>를 제외하면 성비는 2배에서 최대 15배까지 차이가 났다.

[표2] 전체 출연자 성비

	프로그램명	여성(명)	남성(명)
1	추적 60분	7	21
2	저널리즘 토크쇼 J	2	7
3	특파원 보고 세계는 지금	3	9
4	생방송 심야토론	1	10
5	오늘밤 김제동	4	7
6	시사기획 창	9	8
7	제보자들	4	8
8	탐사기획 스트레이트	3	18
9	PD 수첩	3	12
10	당신이 믿었던 페이크 시즌 2	5	14

4 서울YWCA, 2019년 3월 대중매체 양성평등 내용분석 보고서, p8
5 서울YWCA, 2019년 4월 대중매체 양성평등 내용분석 보고서, p3

	프로그램명	여성(명)	남성(명)
11	MBC 100분 토론	1	4
12	궁금한 이야기 Y	3	5
13	그것이 알고 싶다	1	15
14	이규연의 스포트라이트	1	8
15	밤샘토론	1	8
16	사건반장	1	5
17	시사쇼 이것이 정치다	2	16
18	신통방통	3	7
19	보도본부 핫라인	2	4
20	김진의 돌직구쇼	3	9
21	선데이 뉴스쇼	3	12
22	토요 랭킹쇼	3	5
23	판도라	0	7
24	MBN 토요포커스	2	7
25	커버스토리	9	14
합 계		76 (24%)	240 (76%)

출연자 성비를 보여주는 장면





(2) 출연자 성별 연령대

전체 출연자 연령대는 50대가 가장 높았고(36.1%) 40대(30.4%)가 그 뒤를 이었다. 여성과 남성은 30대까지는 비슷한 수로 등장했지만 40대가 넘어가면서 급격한 차이를 보이기 시작한다. 40대에는 남성이 2배 더 등장했지만 50대에서 들어서면 여성은 13명, 남성 101명으로 무려 7배 이상 차이가 났다. 이러한 격차는 점점 더 심해져 60대 이상의 남성이 42명 등장할 때(전체 중 13.3%) 60대 이상 여성은 단 한명도 등장하지 못했다. 시사·토론프로그램 속 노년 여성은 '지식 전달'이라는 역할에 있어 완전히 배제되고 있는 것이다. 특히 50대 남성이 전체 출연진의 1/3을 차지하는 것은 특정 성별과 연령대가 지나치게 과대 대표되고 있는 현실을 보여준다. 이처럼 정치가 과도하게 남성 중장년 중심으로 이뤄질 때, 청년세대와 노년여성은 정치 담론 형성의 장에서 배제된다.

더불어 여성이 절대적으로 적게 등장했음에도, 20-30대는 남여 수가 비슷했다는 결과 또한 유의미하다. 시사·토론프로그램 제작 시 전문성을 바탕으로 출연자를 선택한다고 기대되지만, 실제로는 전문성의 영역 외에 여성에게는 젊음의 가치를 강조하고 있는 것이다.

[표3] 전체 출연자 성별 연령대

(단위 : 명)

	10대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	70대 이상	모름	합계
전체	0 (0.0%)	6 (1.9%)	51 (16.1%)	96 (30.4%)	114 (36.1%)	41 (13.0%)	1 (0.3%)	7 (2.2%)	316 (100%)
여성	0 (0.0%)	2 (0.6%)	27 (8.5%)	33 (10.4%)	13 (4.1%)	0 (0.0%)	0 (0.0%)	1 (0.3%)	76 (24.1%)
남성	0 (0.0%)	4 (1.3%)	24 (7.6%)	63 (19.9%)	101 (32.0%)	41 (13.0%)	1 (0.3%)	6 (1.9%)	240 (75.9%)

(3) 성별 역할

성별 역할은 진행자(나레이션 포함), 패널, 리포터/기자, 전문가 인터뷰이로 구분하였다. 진행자의 경우 남성이 7.9%(25

[표4] 성별 역할

(단위 : 명)

	진행자 (나레이션 포함)	패널	리포터/기자	전문가 인터뷰이	합계
전체	39 (12.3%)	112 (35.4%)	30 (9.5%)	135 (10.1%)	316 (100.0%)
여성	14 (4.4%)	19 (6.0%)	11 (3.5%)	32 (10.1%)	76 (24.1%)
남성	25 (7.9%)	93 (29.4%)	19 (6.0%)	103 (32.6%)	240 (75.9%)

명), 여성이 4.5%(14명)으로 남성이 여성에 비해 약 2배 많았다. 패널의 경우 남성이 29.4%(93명), 여성이 6.0%(19명)을 차지해 남성이 여성에 비해 약 5배 높았다. 리포터/기자는 남성이 6.0%(19명), 여성이 3.5%(11명)으로 남성이 약 2배 높았으며 전문가 인터뷰이 또한 남성이 32.6%(103명), 여성이 10.1%(32명)로 남성이 3배 높았다.

(4) 성별 직업군

전체 출연자의 직업군을 분석한 결과 총 15개의 직업군에 분포되어 있었다. 전체적으로 언론인(기자,PD 등)과 교수의 비중이 가장 높았고(각 64명, 20%) 그 외 전문가(154명, 25.9%)가 뒤를 이었다. 직업군별 성비가 가장 두드러진 직업군은 비평가/평론가와 공무원이었다. 남성은 각각 9명이 등장했지만 여성은 단 한명도 등장하지 못했다. 국회의원의 경우 약 7배, 교수는 3배, 법조인은 6배 남성이 더 많이 등장했다. 이것이 실제 특정 직업군의 성비 불균형을 반영하는 결과라고 보기에는 비평가/평론가와 공무원으로 등장한 여성이 1명도 없었다는 사실을 설명하기에 불충분하다. 법조인 또한 실제 여성 법조인이 전체 법조인 중 26.1%⁶를 차지함에도, 시사·토론프로그램 속에서는 전체 13%(38명중 5명)를 차지했다. 이는 실제 직업군의 성비와 관계없이 시사·토론프로그램에서 남성이 과대 대표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단 특정 직업군의 실제 성비와 미디어 재현 성비의 비교는, 만약 실제 여성이 10%의 직군인 경우 미디어에서 여성 1명, 남성 9명의 성비로 등장해야 한다는 논지가 아니다. 미디어 재현의 성비가 직업군 별 실제 성비와 다르다는 지점은 분명 문제적이지만, 시사·토론프로그램 속 성비 재현이 남성중심으로 이뤄질 때 지식, 정보, 공적인 것의 주관자가 '남성'이 된다는 지점이 성비 불균형 문제의 핵심이다. 남성이 과대 대표되었을 때 남성의 시각이 시사를 다루는 보편이 되기 쉬우며, 남성중심적 주장과 의견이 대표성을 지닌 보편적 의견으로 다뤄지기 때문이다.

성별 역할과 직업군을 함께 고려했을 때, 역할별 성비 차이는 절대적인 수 차이뿐 아니라 여성 출연진의 직업군이 남성 에 비해 한정적이었다는 점 또한 영향을 끼친 것으로 보인다. 가장 큰 성비 차이가 난 패널의 경우 국회의원, 교수, 변호사 직업군이 주를 이뤘는데 패널로 등장한 남성 교수가 25명, 여성 교수는 4명 등장했고, 여성 변호사는 2명 등장했을 때 남성 변호사는 14명 등장해 같은 직종에서의 수 차이가 두드러졌다. 더 나아가 직업군의 다양성을 살펴보면 패널로 등장한 남성의 직업군은 언론인, 비평가, 공무원, 방송인 등 다양했지만 여성 비평가, 공무원, 방송인은 패널로 등장하지 않았다. 진행자 또한 마찬가지였다. 남성 비평가, 배우, 작가가 진행자로 등장했지만, 같은 직종의 여성은 1명도 등장하지 못했다.

[표5] 출연자의 직업군

(단위 : 명)

직업 번호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여성	22	0	4	14	5	0	0	4	0	0	0	0	0
남성	42	9	27	50	33	9	7	8	0	3	0	0	0
계	64	9	31	64	38	9	7	12	0	3	0	0	0

직업 번호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99	계
여성	0	4	0	0	4	0	0	2	1	15	1	76
남성	2	3	0	0	4	0	0	7	1	30	5	240
계	2	7	0	0	8	0	0	9	2	45	6	316

직업분류번호

① 언론인(기자, PD 등) ② 비평가/평론가 ③ 국회의원 ④교수 ⑤ 법조인 ⑥ 공무원 ⑦ 경찰, 형사 ⑧ 방송인/전문진행자 ⑨ 개그맨/코미디언
 ⑩배우 ⑪ 가수 ⑫ 모델 ⑬ 학생 ⑭ 작가 ⑮ 자영업자(사장/대표 포함) ⑯ 일반시청자 ⑰ 요리사/요리연구가 ⑱ 상담사
 ⑳ 주부 ㉑ 운동선수 ㉒ 의사 ㉓ 회사원 ㉔ 그 외 특정 분야 전문가 ㉕ 기타____

6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여성 법조인 현황, 2017, http://gsis.kwdi.re.kr:8083/statHtm/statHtm.do?orgId=338&tblId=DT_1HB1109N

(5) 성평등/성차별적 내용

성평등적 내용은 7건, 성차별적 내용은 9건이 확인됐다. 성평등 사례 중 5건은 성폭력을 자극적으로 소비하거나 폭력을 정당화하지 않고, 사회구조적 문제를 짚어주는 사례였다. 하지만 성차별 사례로도 성희롱·성폭력 정당화 사례가 4건으로 가장 많아, 성폭력의 구조적인 문제를 조명하는 언론의 역할이 여전히 필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표 6] 성평등/성차별적 내용 수 (단위: 건)

구분		건수	구분		건수
성 평 등 적 내 용	주체성, 현실반영성 다양성/대안성을 중심으로	7	성 차 별 적 내 용	성역할 고정관념을 조장	3
				성희롱·성폭력 정당화	4
				성적대상화	1
				기타	1
	합계	7	합계	9	

(6) 방송사별 성평등·성차별 건수

방송사별로는 KBS2에서 4건(26.7%)의 성평등적 내용이 가장 많이 발견되었고, 성차별적 내용은 채널 A의 3건이 가장 높았다.

[표 7] 방송사별 성평등/성차별적 내용 수 (단위: 건)

	KBS1	KBS2	MBC	SBS	JTBC	채널A	MBN	TV 조선	tvN	합계
성평등	4 (57%)	-	1 (14.3%)	1 (14.3%)	-	1 (14.3%)	-	-	-	7
성차별	1 (11%)			1 (11%)	2 (22%)	3 (33%)	1 (11%)	1 (11%)		9

03
질적분석

1) 성평등적 내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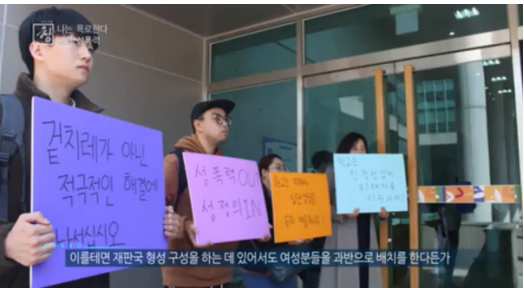
<오늘밤 김제동> ————— KBS1

7월 8일 월요일에 방영된 <오늘밤 김제동>에서는 베트남 이주여성을 폭행한 남편 사건을 다루었다. 이 과정에서 한국인 남성-이주여성의 국제결혼에 따른 가정폭력이 해결되기 어려운 이유를 보도하여 피해를 유발하는 사회구조적인 문제를 주목했다. 이주 여성들이 가정폭력을 신고하지 못한 이유로 “도움을 요청해도 아무 효과가 없을 것 같아서”, “누구에게 도움을 요청해야 할지 몰라서”등의 구체적인 내용을 문제점으로 지적했으며 사건의 사실 전달 이외에도 폭력에 노출되었으나 신고하기 어려운 이주여성을 위해 지원기관의 이름과 연락처를 알려주었다.



<시사기획 창> ————— KBS1

7월 9일 화요일 <시사기획 창>에서는 성범죄 이력으로 중대한 처벌을 받았음에도 목사직을 수행할 수 있는 교단 내 구조적인 문제점을 방송했다. 성폭력 혐의에 대한 재판결과가 나오기 전에 노회에서 먼저 목사의 면직이 결정된 것의 상징성을 강조하며 전북노회에서 어떤 노력을 해왔는지 구체적으로 설명했다. 이 방송에서는 성폭력 사건이 피해자 입장에서 다뤄지



기 위해 구성원들의 성비, 성인지 감수성이 높은 사람들의 재판 참여 등의 조건이 필요함을 강조했다.



2) 성차별적 내용

(1) 젠더(성별)고정관념을 조장

<저널리즘 토크쇼> ——— KBS1

7월 21일 일요일 <저널리즘 토크쇼>에서 교육평론가 이범이 과거에 스타강사로 번 돈을 기부하라는 제안을 받자 “아내에게 허락을 받아야 한다”라고 맞받아쳤고 이에 대해 최옥은 “아내의 아바타입니까”라고 대응하는 장면이 방영되었다. 이 장면이 유머로 소비되면서 부부관계에서 아내를 남편의 자유를 강제하는 사람, 남편을 조정하는 사람으로 묘사하는 효과가 발생했고 이는 ‘아내’에 대한 전통적인 편견을 강화하는 것으로 이어졌다. 또한 최옥이 자녀가 없어서 (해당 회차의 토론 주제인) 자사고 문제와 관련해 관심이 없다는 발언을 하자 “미혼주의”라는 자막이 따라왔다. 미혼이라는 표현은 결혼 상태가 정상이고 그 외를 비정상으로 상정하는 것으로 최근 ‘비혼’이라는 표현으로 대체되고 있음을 고려할 때 적절하지 않은 자막이 사용된 것이다.

<토요랭킹쇼> ——— 채널A

7월 13일 방영된 <토요랭킹쇼>에서는 여자 고등학생들을 지칭하며 불필요하게 성별을 강조했다. 고등학생, 학생 또는 시민이라고 소개해도 무방한 상황에서 여성일 때는 성별이 드러나고 남성일 때는 성별이 드러나지 않았다. 남성 중학생들이 저지른 범죄에 대해서는 “중학생”으로만 표현했고 뒤늦게 보도 내용 장면에서 기자가 음성으로 “송 모 군 일당”이라 언급하며 성별을 나타냈을 뿐이었다. 인간 보편 기준으로 남성을 두기 때문에 남성의 경우 성별 표기를 하지 않고, 여성만 특정하는 성별 고정관념이다.



(2) 성희롱·성폭력 정당화

① 성범죄를 정치적 공방의 소재로 사용

<사사쇼 이것이 정치다> ——— TV조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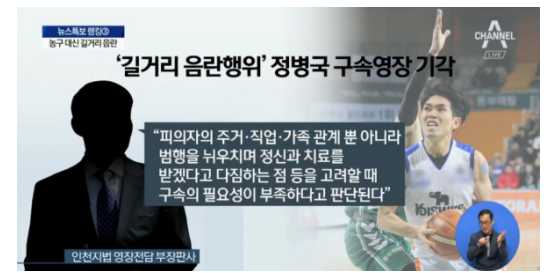
7월 16일 화요일에 방영된 TV조선 <사사쇼 이것이 정치다>에는 홍준표 전 자유한국당 대표가 류여해 전 최고위원을 성희롱한 사건에 대한 재판 결과를 보도했다. 이때 홍 전 대표를 고소하겠다는 류여해 전 위원장의 발언과 실제 홍 전 대표 성희롱 발언을 연달아 편집해서 누구의 말이 더 신빙성 있는지를 대결시켜 성희롱 사건을 단순한 정치적 공방으로 다루려했다. 성희롱을 사소하게 만들거나 정치 문제화 하면서, 홍준표 전 대표의 발언이 성희롱이라는 본질을 흐렸다.



② 성범죄 사건과 무관한 가해자의 성격, 평판을 부각한 사례

<토요랭킹쇼> ——— 채널A

7월 20일 토요일 방영된 <토요랭킹쇼>는 길거리에서 음란행위⁷⁾를 한 프로농구 선수의 구속영장이 기각되었다는 소식을 전하며 영장이 기각된 이유를 상세하게 보도했다. 이때 전병국 선수가 프로선수로서 팬도 많이 있고 많이 주목을 받았던 선수였는데”라는 발언으로 시작해 사건과 관계없이 가해자의 업적과 평판을 부각했다. 이같이 가해자 평판을 강조하는 보도는 ‘가해자로 지목된 자의 재능 및 업적 등 긍정적 특성을 부각시키는 보도는 그 자체로 범죄 행위를 희석시키는 효과가 있으므로 유의하여야 한다’는 성범죄 사건보도 윤리⁸⁾에 어긋난다.



7 이 사건은 길거리에서 여성에 대한 성적 위협을 한 사례이지만, 현재 법적으로 한국사회에서 직장 외에서는 성희롱 범주가 없다보니 음란죄로 처벌을 받았다. 이 사건의 본질은 길거리에서 무작위로 여성을 상대로 한 성적 위협, 성희롱이기에 보고서에서는 성희롱 성폭력 정당화 하위 범주로 넣었다.

8 한국기자협회 정관 중 성폭력 성희롱 사건보도 공감기준 및 실천요강 참고함

③ 성폭력 사건을 선정적인 가십거리로 다룬 사례

<궁금한 이야기Y> ————— SBS

7월 26일 방영된 <궁금한 이야기Y>에서는 이모부에 의한 성폭행 사건을 보도하며 폭행 당시 상황을 선정적이고 자극적으로 편집해서 방송했다. 피해자의 진술에 근거했다 하더라도 이러한 편집은 2차 가해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또한 성폭력 가해자가 지속적으로 성관계를 요구한 것은 사주팔자와 운명 때문이라는 가해자 중심적인 사유가 방송 내내 언급되어 성폭력 사건에 대한 다각도의 심층적 분석 없이, 가해자의 변명을 지속적으로 노출 시켰다.



(3) 성적대상화

<김진의 돌직구쇼> ————— 채널A

7월 26일 방영된 <김진의 돌직구쇼>에서는 통신매체 이용 음란죄로 피소된 윤지오 사건을 다루었다. 이번 쟁점은 과거 윤지가 아프리카 BJ 당시 찍었던 영상들인데, “논란이 되고 있기에 전체 영상을 보여드릴 수 없지만 신체 일부가 이렇게 드러나는 영상의 사진들도 저희가 캡처를 통해 여러분들께 보여드리고 있습니다.”라고 말하며 영상에서 가슴, 입술 등이 강조되는 부분을 클로즈업 후 캡처 해 내보냈다. 이 장면들이 논란의 핵심이라고 하더라도, 캡처 사진 뒤 이어 나온 고발인의 ‘음란죄’ 주장 문구는 앞의 사진 사례 없이도 이해 가능할 정도로 구체적이었다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 특히 사건 소개 처음에 이 사건과 무관한 영상을 보여주며 ‘굉장히 짧은 스커트와...’라는 평가와 함께 윤지오씨의 영상을 소개하고, 그 뒤에 특정 신체부위만을 부각한 영상 캡처 사진을 전시



하는 것은 여성에 대한 성적 대상화를 통해 시청자들의 눈길을 끌려는 성차별적인 의도가 내포되어 있다고 보여진다.

(4) 기타

<보도본부 핫라인> ————— TV조선

7월 8일 방영된 <보도본부 핫라인>에서는 베트남 이주 여성인 아내를 폭행한 남편의 사건을 다루면서 당사자인 부부의 과거 관계나 행적 등 피해자의 사생활을 침해할 수 있는 내용을 불필요하게 자세히 보도했다. 그리고 보도하는 내내 남편이 아내를 폭행하는 장면을 지속적으로 노출시켜 자극적이고 선정적으로 소비하도록 유도했다. 또한 해당 사안에 대한 제대로 된 수사가 이뤄지기 이전이며, 이주 여성에 대한 폭행은 단순히 개인의 일탈로 바라보기 보다는 구조적인 접근이 필요함에도 “이주 여성의 문제라기보다는 인간 대 인간의 문제”라고 규정했다.



04 나가며 : 여성 없는 시사·토론 프로그램

다는 점을 직접 보여주었다. 반면 TV조선 <보도본부 핫라인>에서는 같은 사건을 두고 폭행 장면을 자극적으로 소비하는 것에 그쳤다. 아이가 울거나 아내에게 발길질하는 남편의 모습을 지속해서 반복적으로 자료화면으로 사용했고, 사건 관련자들의 과거 행적을 불필요하게 자세히 보도했다. 이처럼 같은 사건을 다루더라도, 언론의 문제의 원인을 어떻게 파악하고 있는지에 따라, 보도 내용이 달라질 수 있음을 보여준다.

유네스코는 세상에 대한 상을 구성하는 미디어의 역할을 고려할 때, 픽션보다 보도 프로그램처럼 사실을 기반에 두고 있는 프로그램에서 젠더 묘사에 더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¹⁰ 전문적인 식견을 가진 자가 등장하는 시사·토론프로그램에 남성들이 과대 등장할 때 한국 사회의 지식 영역이 남성 중심으로 재편될 가능성이 높다는 점, 시사·토론프로그램에서 성범죄 보도를 다루는 방식이 사건 피해자와 가해자를 바라보는 담론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시사·토론프로그램에서의 젠더 묘사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 및 사회적 논의가 필요하다.

이번 모니터링 과정에서 가장 인상적이었던 것은 ‘여성’ 없는 시사·토론프로그램의 장면들이었다. 2019년 7월, 25개의 시사·토론프로그램 속 출연자 성비는 여성 24%(76명), 남성 76%(240명)으로 시사·토론프로그램 속 남성은 여성에 비해 약 3배 많이 등장했다. 정치·경제 등 다양한 사회 현안을 다루는 자리에 50대 남성이 1/3을 차지할 때 60대 이상 여성은 단 한명도 등장하지 못했다. 비평가 및 공무원 남성이 각 9명씩 등장 할 때 같은 직업군의 여성 또한 한명도 등장하지 못했다. 2017년 미디어 속 성차별을 분석한 연구⁹는 드라마와 오락 장르에서는 여성과 남성의 비율이 4:6정도로 남성의 출연 비율이 높았는데, 뉴스 및 시사토크, 생활/교양 장르에서는 3:7의 비율로 남성의 출연 비율이 더 높았음을 지적했다. 특히 시사토크 프로그램의 경우에는 여성의 출연 비율이 2015년에는 20% 수준이었으나 2017년에는 10%대로 떨어졌었다. 이러한 지적이 계속 이어져왔음에도 시사·토론프로그램시사 속 성비 불균형 문제는 해결되지 않고 있는 것이다.

시사·토론프로그램 속 성비 재현이 남성 중심으로 이뤄질 때 지식, 정보, 공적인 것의 주관자가 ‘남성’이 된다는 지점이 성비 불균형 문제의 핵심이다. 남성이 과대 대표되었을 때 남성의 시각이 시사를 다루는 보편이 되기 쉬우며, 남성중심적 주장과 의견이 대표성을 지닌 보편적 의견으로 다뤄지게 된다.

성비 불균형 문제 이외에, 보도 내용의 측면에서 성평등적 내용은 7건, 성차별적 내용은 9건이 발견되었다. 베트남 이주 여성 폭행 사건에 대한 KBS1 <오늘밤 김제동>과 TV조선 <보도본부 핫라인>이 다른 방식의 차이는 성평등한 보도가 무엇인지에 대한 방향을 제시했다. KBS1 <오늘밤 김제동>에서는 이주여성들이 한국사회에 정착하기 힘든 현실과 가정폭력을 당해도 신고하기 어려운 점에 주목했다. 또한 이주여성인 아내가 공개한 폭력 당시의 영상을 최소한으로 사용했으며 이와 유사한 사건이 발생하지 않기 위해서 어떤 노력이 요구되는지 강조하기도 했다. 이는 여성에 대한 폭력, 특히 이주 여성을 상대로 한 폭행 사건을 다룰 때 언론사가 단순히 사실 관계를 밝히는 것 이상의 구조적 접근이 필요하

<오늘밤 김제동> ————— KBS1



<보도본부 핫라인> ————— TV조선



9 미디어에 의한 성차별 모니터링, 한국방송학회, 국가인권위원회, 2017년, p202
10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방송프로그램의 양성평등 실태조사, 한국여성커뮤니케이션학회, p48

1) 성평등적 내용

방송사, 프로그램	내용 및 이유	해당장면
채널A <선데이 뉴스쇼> 7월 14일	‘신림동 원룸 강간미수 사건’과 ‘광주 모녀 성폭행 미수 사건’에 대한 전문가의 의견을 보도함. 성범죄는 다른 범죄에 비해 재범률이 높음에도 전자발찌 착용 외에 별다른 관리가 없다는 점, 인력 부족으로 보호감찰관 1명이 성범죄자 19.2명을 담당해야 하는 현실을 보여주고 “양형기준 강화” 등 대안을 제시함. 기존의 성범죄 관련 뉴스가 사건을 자극적으로만 소비했던 것에 비해 해당 보도는 그 원인과 대안 등을 면밀히 살펴봄.	
SBS <궁금한 이야기Y> 7월 26일	성폭력 사건에 대한 여성 전문가들의 의견을 제시함. 십수년에 걸쳐 발생한 성폭력 사안을 경찰은 ‘진술 이외에 증거가 없고 피해자의 진술에 신빙성이 낮다는 의견’으로 불기소했는데 이를 두고 여성 상담심리학자 교수는 가해자의 녹음파일을 중요한 증거라고 평가했고, 여성 변호사는 경찰의 부실 조사가 부당하다고 언급함. 경찰에서 경시한 증거들을 여성 피해자의 입장에서 재조명하는 과정을 보여주며 피해자 입장에서 성폭력 사건을 바라보기 위해 노력함.	

방송사, 프로그램	내용 및 이유	해당장면
KBS1 <사사기획 창> 7월 9일	성범죄 이력으로 중대한 처벌을 받았음에도 목사직을 수행할 수 있는 교단 내 구조적인 문제점을 다루는 내용. 성폭력 혐의에 대한 재판결과가 나오기 전에 노회에서 먼저 목사의 면직이 결정 된 것의 상징성을 강조하며 전북노회에서 어떤 노력을 해왔는지 구체적으로 설명함. 이 과정에서 성폭력 사건이 피해자 입장에서 다뤄지기 위해서는 구성원들의 성비, 성인지 감수성이 높은 사람들의 재판 참여 등의 조건이 필요함을 강조함.	
MBC <당신이 믿었던 페이크> 7월 15일	강제추행으로 유죄 판정을 받은 조덕제 사건에 대해 사건 공론화 이후 달라진 피해자의 상황을 보여줌. 해당 방송이 가짜뉴스의 피해 사례에 대한 내용이었던 만큼 조덕제가 인터넷 방송으로 가짜뉴스를 만들어내고 이로 인해 피해자가 겪어야 했던 어려움을 피해자의 입장에서 보도함. 성범죄의 가해자가 유명인인 경우 피해자가 받는 피해가 어떤 양상을 띠는지, 손쉽게 2차 가해가 발생하고 그것을 방지할 법적인 장치는 있는지 등을 상세하게 살펴봄.	
KBS1 <오늘밤 김제동> 7월 10일	불법촬영 범죄의 원인과 대책을 면밀하게 살펴봄. “화가 나고 불안한 것은 여성들의 몫”, “여성들의 불안감, 공포심이 가장 큰 문제”라고 언급하며 여성들이 느끼는 불안감이 사회적으로 저평가되고 있음을 지적함. 또한 불법 촬영을 범죄라고 인식하지 않는 사회적 분위기를 언급하며 개인들이 느끼는 불안감을 줄일 수 있는 공공기관의 노력과 법 집행의 중요성을 강조함. 불법 촬영 범죄가 대표적인 성 범죄라는 것을 감안했을 때 이러한 분석은 성차별적이고 성폭력적인 사회구조의 문제점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지적하려는 노력으로 보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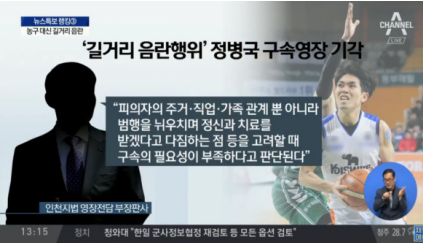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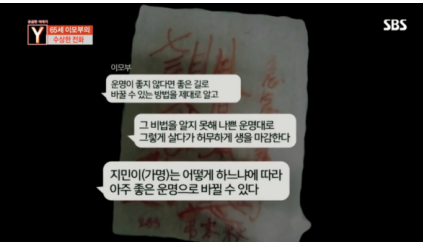
방송사, 프로그램	내용 및 이유	해당장면
KBS1 <특파원보고 세계는 지금> 7월 20일	얼마 전 앨런 튜링이 2020년 발행될 영국 50파운드 지폐의 초상인물로 선정됨. 영국 중앙은행의 이러한 선택은 그의 업적을 높이자는 것과 함께 그가 '성소수자'라는 이유로 경찰에 체포되고 화학적 거세까지 받는 수모를 겪은 후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에 대한 반성에 의한 것임을 소개. '성소수자'에 대한 기존의 편견을 버려야 한다는 것을 시사함.	 
KBS1 <오늘밤 김제동> 7월 8일	베트남 이주여성을 폭행한 남편 사건을 다루면서 한국인 남성-이주여성의 국제결혼에 따른 가정폭력이 해결되기 어려운 이유를 보도하여 피해를 유발하는 사회구조적인 문제를 주목함. 이주 여성들이 가정폭력을 신고하지 못한 이유로 “도움을 요청해도 아무 효과가 없을 것 같아서”, “누구에게 도움을 요청해야 할지 몰라서”등의 구체적인 내용을 문제점으로 지적함. 또한 사실 전달 이외에도 폭력에 노출되었으나 신고하기 어려운 이주여성을 위해 지원기관의 이름과 연락처를 알려주었음.	  

2) 성차별적 내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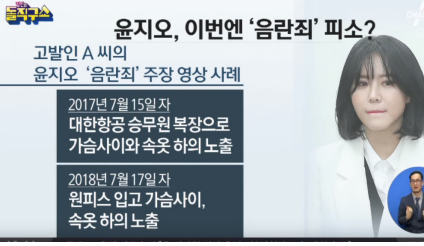
(1) 젠더(성별) 고정관념을 조장

방송사, 프로그램	내용 및 이유	해당장면
KBS1 <저널리즘 토크쇼> 7월 21일	교육평론가 이범이 과거에 스타강사로 번돈을 기부하라는 제안을 받자 “아내에게 허락을 받아야 한다”라고 맞받아쳤고 이에 대해 최옥은 “아내의 아바타입니까?”라고 대응함. 이 장면이 유머로 소비되면서 부부관계에서 아내를 남편의 자유를 강제하는 사람, 남편을 조정하는 사람으로 묘사하는 ‘아내’에 대한 전통적인 편견을 강화함. 또한 최옥이 자녀가 없어 (해당 회차의 토론 주제인) 자사고 문제와 관련해 관심이 없다는 발언을 하자 “미혼주의”라는 자막이 따라왔음. 미혼이라는 표현은 결혼 상태가 정상이고 그 외를 비정상적으로 상정하는 것으로 최근 ‘비혼’이라는 표현으로 대체되고 있음을 고려할 때 적절하지 않은 자막이 사용됨.	 
채널A <토요랭킹쇼> 7월 13일	여자 고등학생들을 지칭하며 불필요하게 성별을 강조함. 고등학생 또는 학생 또는 시민이라고 표현하고 소개해도 무방한 상황에서 여성일 때는 성별이 드러나고 남성일 때는 성별이 드러나지 않음. 그러나 남성 중 학생들이 저지른 범죄에서는 이들은 “중학생”으로만 표현했고 뒤늦게 보도 내용 장면에서 기자가 음성으로 “송 모 군 일당”이라 언급하며 성별을 나타냄.	 
JTBC <이규현의 스포트라이트> 7월 4일	“가정주부치고 그래도 참 깔끔하게 차리고 다니고”라는 표현은 가정주부는 원래 깔끔하지 않다는 생각을 전제로 하기 때문에 가정주부에 대한 비하로 해석 가능함	

(2) 성희롱·성폭력 정당화

방송사, 프로그램	내용 및 이유	해당장면
TV조선 <시사쇼 이것이 정치다> 7월 16일	7월 16일 화요일에 방영된 TV조선 <시사쇼 이것이 정치다>에는 홍준표 전 자유한국당 대표가 류여해 전 최고위원을 성희롱한 사건에 대한 재판 결과를 보도함, 이때 홍 전 대표를 고소하겠다고 류여해 전 위원장의 발언과 실제 홍 전 대표 성희롱 발언을 연달아 편집하며 누구의 말이 더 신빙성 있는지에 대한 이야기로 진행되면서 성희롱 사건을 단순한 정치적 공방으로 다루고자 하는 목적이 드러남.	
채널A <토요랭킹쇼> 7월 20일	7월 20일 토요일 방영된 <토요랭킹쇼>는 길거리에서 음란행위를 한 프로농구 선수의 구속영장이 기각되었다는 소식을 전하며 영장이 기각된 이유를 상세하게 보도함. 이때 전병국 선수가 프로선수로서 팬도 많이 있고 많이 주목을 받았던 선수였는데”라는 발언으로 시작해 사건과 관계없이 가해자의 업적과 평판을 부각함.	 
SBS <궁금한 이야기Y> 7월 26일	7월 26일 방영된 <궁금한 이야기Y>에서는 이모부에 의한 성폭행 사건을 보도하며 폭행 당시 상황을 선정적이고 자극적으로 편집해서 방송함. 피해자의 진술에 근거했다 하더라도 이러한 편집은 피해자에게 2차 가해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음. 또한 성폭력 가해자가 지속적으로 성관계를 요구한 것은 사주팔자와 운명 때문이라는 가해자 중심적인 사유가 방송 내내 언급되어 성폭력 사건에 대한 다각도의 심층적 분석 없이, 가해자의 변명을 지속적으로 노출 시킴.	 

(3) 성적대상화

방송사, 프로그램	내용 및 이유	해당장면
JTBC <이규현의 스포트라이트> 7월 4일	성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하는 사람의 상처를 보고 전문가가 “생활하면서 발생할 수 있는 찰과상 정도. 그것밖에 안 되는 거거든요. 성폭행 방어흔 치고는 너무 얇다.”고 말함. 사건에 대한 진상 확인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상황에서 이를 근거자료로 사용하는 것은 성폭력은 겉으로 드러난 물리적인 상처가 커야 성립한다는 잘못된 인식을 심어줄 가능성이 높음.	 
채널A <김진의 돌직구쇼> 7월 26일	7월 26일 방영된 <김진의 돌직구쇼>에서는 통신매체 이용 음란죄로 피소된 윤지오 사건을 다루었음, 이번 쟁점은 과거 윤지가 아프리카 BJ 당시 찍었던 영상들인데, “논란이 되고 있기에 전체 영상을 보여드릴 수 없지만 신체 일부가 이렇게 드러나는 영상의 사진들도 저희가 캡처를 통해 여러분들께 보여드리고 있습니다.”라고 말하며 영상에서 가슴, 입술 등이 강조되는 부분을 클로즈업 후 캡처 해 내보냄. 이 같은 장면들이 논란의 핵심이라고 하더라도, 캡처 사진 뒤이어 나온 고발인의 ‘음란죄’ 주장 문구는 앞의 사진 사례 없이도 이해 가능할 정도로 구체적이었다는 점을 고려해야 함. 특히 사건 소개 처음에 이 사건과 무관한 영상을 보여주며 ‘굉장히 짧은 스커트와...’라는 평가와 함께 윤지오씨의 영상을 소개하고, 그 뒤에 특정 신체부위만을 부각한 영상 캡처 사진을 전시하는 것은 여성에 대한 성적 대상화를 통해 시청자들의 눈길을 끌려는 성차별적인 의도가 내포되어 있다고 보여짐.	

방송사, 프로그램	내용 및 이유	해당장면
TV조선 <보도본부 핫라인> 7월 8일	베트남 이주 여성인 아내를 폭행한 남편의 사건을 다루며 당사자인 부부의 과거 관계나 행적 등 피해자의 사생활을 침해할 수 있는 내용을 불필요하게 자세히 보도함. 그리고 보도하는 내내 남편이 아내를 폭행하는 장면을 지속적으로 노출시켜 자극적이고 선정적으로 소비하도록 유도함. 또한 해당 사안에 대한 제대로 된 수사가 이뤄지기 이전이며, 이주 여성에 대한 폭행은 단순히 개인의 일탈로 바라보기 보다는 구조적인 접근이 필요함에도 “이주 여성의 문제라기 보다는 인간 대 인간의 문제”라고 규정.	

모니터링 체크리스트
(시사·토론 프로그램)

1. 모니터요원 :

2. 방송사

① KBS1 ② KBS2 ③ MBC ④ SBS ⑤ TBC ⑥ MBN ⑦ 채널A ⑧ TV조선 ⑨ tvN

3. 프로그램 명 :

4. 방영일시 : 2019년 월 일() : - :

5. 주요 출연자 분석

5-1. 이름	
5-2. 역할	① 진행자(나레이션) ② 패널 ③ 리포터, 기자 ④ 전문가 인터뷰
5-3. 성별	① 여성 ② 남성
5-4. 연령	① 10대 이하 ② 10대 ③ 20대 ④ 30대 ⑤ 40대 ⑥ 50대 ⑦ 60대 ⑧ 70대 이상
5-5. 직업	① 언론인(기자, PD 등) ② 비평가/평론가 ③ 국회의원 ④ 교수 ⑤ 변호사, 검사, 판사 ⑥ 공무원 ⑦ 경찰, 형사 ⑧ 방송인/전문진행자 ⑨ 개그맨/코미디언 ⑩ 배우 ⑪ 가수 ⑫ 모델 ⑬ 학생 ⑭ 작가 ⑮ 자영업자(사장/대표 포함) ⑯ 일반신청자 ⑰ 요리사/요리연구가 ⑱ 상담사 ⑲ 주부 ⑳ 운동선수 ㉑ 의사 ㉒ 회사원 ㉓ 그 외 특정 분야 전문가 ㉔ 기타_____

6. 내용분석

• 성평등적 내용(양성평등 기여도)

방송사	프로그램명	방영일시 (회차)	내용 및 이유 (해당장면/분석)

• 성차별적 내용

구분	방송사	프로그램명	방영일시 (회차)	내용 및 이유
젠더(성별) 고정관념을 조장				
성희롱·성폭력 정당화				
외모에 대한 평가				
성적 대상화				
기타				

1. 성평등적 내용 : 주체성, 현실 반영성, 대안성, 다양성을 중심으로.
- 성불평등적인 젠더 관계에 대한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여성이 처한 문제와 상황을 잘 파악하여 남녀불균형적인 현실을 적절히 묘사하고 있는가?

- 성평등을 위한 문제 해결방식을 과장되거나 희화화되지 않는 방식으로 제시하고 있는가?

- 전통적으로 남성의 영역이라고 여겨졌던 분야에 진출한 여성의 능동성을 보여주고 있는가?

- 여성이 본인의 신념과 철학에 따라 일을 주체적으로 수행하는 장면을 제시하는가?

- 성역할 고정 관념에서 벗어난 다양한 역할을 표현하고 있는가?

- 다양한 가족형태를 긍정적으로 보여주고 있는가?

- 나이, 성별 등에 구애받지 않는 다양한 인물들을 등장시키고 있는가?
2. 성차별적 내용
- ① 젠더(성별)고정관념을 조장

- 여성성/남성성을 이분법적으로 규정하여 고정관념을 고착화하는 내용을 보이고 있는가?

- 특정 역할에서 성비의 수적 균형을 이루지 못하고 있는가?

- 남성중심적 성규범(강간 통념 등)을 강화하는 내용을 무분별하게 보여주고 있는가?

- 여성을 남성의 단순보조나 부속물로 취급하는 내용 혹은 그렇게 보이도록 하는 내용을 보여주고 있는가?

② 성희롱·성폭력 정당화

- 가정폭력, 성희롱, 성폭력을 ‘폭력’으로 인식하지 못하도록 미화해 그리고 있는가?

- 출연자 및 방청객을 성희롱하는 행위 및 언어를 포함하고 있는가?

- 가정폭력, 성희롱, 성폭력을 불필요하게 노골적으로 전시하고 있는가?

③ 외모에 대한 평가

- 외모를 평가하는 발언을 하는가?

- 출연자의 외모를 조롱, 혐오의 대상으로 삼거나 그와 관련된 언어를 사용하는가?

④ 성적대상화

- 카메라의 구도나 움직임이 여성이나 남성의 신체를 분절하거나 특정 신체부위만을 부각하여 전시하는가?

- 여성을 남성의 성적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한 대상으로 바라보는가?

⑤ 기타

- 독신, 한부모, 이혼가족, 재혼가족, 동성가족, 입양가족 등 다양한 가족의 형태를 인정하지 않고, 이를 부적으로 그리거나 부정적인 언어를 사용하고 있는가?

- 00녀와 같은 가부장적이거나 성차별적인 단어(혹은 어휘, 혹은 표현)를 사용하는가?
- 30
- 대중매체 양성평등 내용분석 사업

발행일 | 2019년 8월
발행처 | 서울YWCA
발행인 | 이유림
작성 | 강유민 황경희 (서울YWCA 여성운동국)
자문 | 김수아 (서울대학교 언론정보학과
여성학협동과정 부교수)
협력기관 |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



본 사업은 서울YWCA가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의 의뢰를
받아 수행한 것입니다.
본 보고서의 내용은
수행기관의 의견으로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의
공식적인 의견과 다를 수 있습니다.